

## 여수, 가을철 성어기 대비 어선 합동 안전점검

가을 성어기 앞두고 관계기관 점검…구명장비·통신설비 안전관리 강화

여수시는 지난 14일 국동항 일원에서 연근해 어선을 대상으로 어선 사고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가을철 성어기를 앞두고 과적과 야간조업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태풍과 계절풍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에는 여수시를 비롯해 해양수산부, 전남광주통합특례시, 여수해양경찰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여수지사, 수협중앙회 여수어선안전조업국 등이 참여했다.

주요 점검 사항은 긴급구난 및 기상특보 수신을 위한 통신수단 확보와 작동 여부, 기관·전기설비 상태, 구명조끼와 구명부환 등 구명장비 비치 및 관리 상태, 소화기 비치 수량과 유효기간 등이다. 또한 어선 위치발신장치 조난버튼 사용법과

구명조끼 상시 착용, 안전조업 교육 이수, 운항 중 경계 강화 등 안전수칙 준수도 당부했다. 여수시는 어업인의 안전한 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선 안전장비 구입비를 지원 하는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과 노후 기관 교체 비용을 지원 하는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합동 안전점검은 어선의 주요 설비와 안전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조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가을철에는 어획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조업 횟수와 운항 시간이 늘어날 수 있어 어업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어선 운항 중에는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기상특보가 발효될 경우 무리한 출항이나 조업을 자제해야 한다. 출항 전에는 선박의 기

관과 전기설비 상태를 확인하고, 통신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

구명조끼와 구명부환 등 안전장비는 비상 상황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해진 장소에 비치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화기 역시 사용 가능 여부와 유효기간을 확인해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어선 위치발신장치는 사고 발생 시 선박의 위치를 파악하고 구조 활동을 진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평소 작동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조업 중에는 주변 선박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살피고, 운항 중 경계를 소홀히 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안전조업 교육에 참여해 사고 예방 요령과 비상 상황 대처 방법을 익히는 것도 안전한 조업을 위한 중요한 요소다.

/이유빈 기자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합동 안전점검 사진

/여수 시청 제공

순천시, 장애인식 개선 ‘공감 콘서트’ 성황리에 개최

순천시(시장 손훈모)는 지난 13일 문화건강센터 다목적홀에서 시민과 학생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식 개선 ‘공감 콘서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행사는 장애인 공감 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된 ‘행복한 우리 앙상블’의 공연, ‘사이영사회적협동조합’의 샌드아트 공연이 진행됐다. 또한 싱어송라이터 하림의 감성 공연과 참가자들이 함께 한 공감 토크도 이어졌다.

특히 진행자가 직접 객석으로 찾아가 참석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무대와 객석이 함께 소통했다. 학생들은 서로의 꿈 이야기를 나누며 공감하는 시간도 가졌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감 콘서트를 통해 음악과 예술이 장애인식 개선의 큰 매개체가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유빈 기자

## ‘2026 전남광주 통합 채용박람회’ 광양에서 열려

광양시(시장 박성현)는 지난 14일 광양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2026 전남광주 통합 채용박람회’가 열려 59개 구인기업이 참여하고 구직자 1,500여 명이 방문했다고 밝혔다.

박람회는 전남광주통합특례시 출범에 따른 지역 간 일자리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기업의 구인난 해소와 구직자의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행사장에는 채용존, 미래산업존, 홍보존, 참여존 등이 마련됐으며, 현장 면접과 기업·일자리 정책 홍보, 취업 컨설팅 등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채용존에는 현장채용 기업 39개사와 간접채용 기업 20개사가 참여했다.

특히 광양 소재 21개 기업이 생산

직과 연구직 등 여러 분야에서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현장면접을 진행했다.

홍보존에는 여수광양항만공사, 포스코, 전남테크노파크, 포스코엔텍, 포스코GYR테크 등 주요 기관과 기업이 참여해 산업 및 기업 정보를 제공했다. 또한 21개 일자리 유관기관이 관련 정책을 안내하고, 6개 취업 컨설팅관에서는 구직자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상담을 진행했다.

박람회에 참여한 30대 구직자는 “평소 관심 있던 기업의 채용 정보를 한자리에서 확인하고 직접 면접까지 볼 수 있어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들에게 이런 기회가 자주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유빈 기자

## 곡성군 미래교육재단, 초등 교과연계 마을교육과정 ‘곡성역사 골든벨’ 운영

곡성군미래교육재단은 지난 13일 관내 죽곡·석곡·고달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사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배우고 되새기는 ‘2026년 초등 교과 연계 마을교육과정 곡성역사 골든벨’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골든벨은 6월부터 9월까지 진행된 곡성역사 교육과정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추진됐다. 학생들은 교사와 함께 주요 학습 내용을 복습하고, 워크북을 토대로 출제된 다양한 퀴즈에 참여하며 그동안 배운 지식을 확인했다.

이를 통해 역사 학습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친구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며 배움의 즐거움을 나눴다.

재단은 지난 1월부터 초등학교 사회와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수업지도안과 곡

성역사 워크북을 개발해 교육의 전문성과 현장 활용도를 높였다.

학생들은 마을역사 강사와 초등학교 교사들이 공동으로 개발한 곡성역사 워크북을 활용해 곡성의 역사적 배경과 문화유산을 흥미로운 이야기로 접했다. 또한 교실수업과 현장 수업을 연계한 교육과정을 통해 우리 고장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지역의 역사적 가치를 배웠다.

재단 관계자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배우고, 골든벨을 통해 배운 내용을 스스로 확인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학교 교육과 지역의 문화적 자원을 연계한 마을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우리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일규 기자

## 구례군, ‘2026년 정원관리 평생교육’ 수강생 모집

구례군은 군민들의 정원 가꾸기 역량을 높이고 일상 속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2026년 정원관리 평생교육’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정원에 관심 있는 주민들이 식물을 기르고 정원을 관리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실습 중심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정원관리 경험이 없는 초보자도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취미형 과정으로 구성했다.

교육은 텃밭정원 조성, 식물 생육에 필요한 토양관리, 텃밭 생태계 이해 등 정원 가꾸기에 필요한 기초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론교육과 현장 실습을 병행해 수강생들이 배운 내용을 실제 생활공간에 적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 기간은 오는 10월 29일부터 12월 17일까지로, 매주 목요일 오후

총 8회에 걸쳐 32시간 과정으로 진행된다.

모집 인원은 16명이며, 신청 대상은 구례군에 거주하는 군민과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교육생이다. 신청은 10월 15일부터 21일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자세한 교육 일정과 신청 방법은 지리산정원 및 구례군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례군은 이번 교육을 통해 군민들의 여가활동을 다양화하고 가정과 생활공간에서 정원을 직접 가꾸는 문화가 확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길선 구례군수는 “초보자들도 바로 실생활에서 응용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가드닝 교육을 통해 많은 군민들이 정원을 가꾸며 일상에 편안함과 여유가 스며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심선섭 기자



# NAJU

## 우리농가를 살리는 착한 소비!



### 오색마을

[나주시 쇼핑몰]